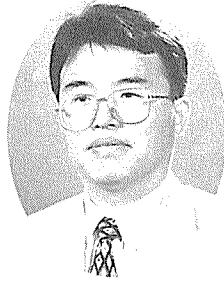


'99년 경기전망과 정유업계의 대응



온 기 운

〈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

경기회복세 가시화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해오던 일부 국내외 기관들도 최근에는 금년도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기를 보다 밝게 보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최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년도 성장률을 3.2%로 내놓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경제가 이미 저점을 통과했다고 보기도 하고 곧 저점에 이를 것으로 보기도 하고 있다. 경기저점을 어떻게 보든 작년 가을 이후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경기회복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경기의 앞을 내다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기선행지수가 작년 7월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작년 3월 이후 하락세가 멈추어지고 -3% 전후를 횡보하다가 7월 이후에는 마이너스 폭이 감소하더니 10월 이후에는 플러스로 돌아서 10월과 11월에는 각각 0.8%와 3.2%를 기록하였다. 과거 경기 사이클에서는 선행지수가 저점을 지난 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평균 7.6개월) 뒤에 실제 경기저점이 나타났으므로 작년 7월을 선행지수의 저점으로 본다면 작년 말에 경기저점이 이미 나타났거나 금년초에 경기저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경기저점이나 정점은 사후적으로 1~2년 지나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이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로 산업활동 통계의 변화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산업생산은 작년 9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11월에는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1.4%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1~10월의 평균 -9.1%를 크게 웃돌았다. 아직 발표는 안되었지

만 12월 산업생산은 비교시점인 전년동기가 외환 위기 발생 직후로 산업생산이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11월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출하와 도소매 판매도 작년 11월에는 각각 1~10월의 평균 -10.8%, -13.9%보다 크게 상승한 -3.1%와 -8.4%를 기록하는 등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아직 -30% 이하에 머물러 있지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액은 작년 11월에 각각 -5.1%와 -38.7%를 기록하여 10월의 -25.8%와 -55.1%보다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한편 재고는 작년 11월에 16.3%의 감소율을 나타내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고 감소는 향후 산업 생산을 확대케 하는 배경이 되며, 이는 경기회복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기여

이러한 지표상의 경기회복세 확산 모습은 정부 정책에 의하여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년중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5%로까지 확대시키는 가운데 상반기중에 투자사업예산의 70% 이상을 배분하고, 재정적자의 50% 수준을 실현할 예정으로 있는 등 경기진작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여 건설경기를 부추기려는 정책도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어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용경색 완화도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작년 9월말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일단락짓고, 총 64조원의 자금을 금융

기관에 주입하여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향상되는 등 건전성이 제고되어 극심한 대출기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가을 이후 은행에 크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신용경색 완화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금리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투자회복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금리하락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이후 대형승용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회복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경기회복세 확산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금년에 과연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대략 1~3%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런데 금년 성장률이 몇 %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재고가 국민계정상 20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재고가 예년 수준인 약간의 플러스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증가의 정도를 크게 볼수록 예상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원화절상 압력 지속

금년중 원화가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요인중 중

요한 것은 대내적 요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향방이다. 경상수지의 경우 1999년중 그 폭은 전년에 비하여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25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여 달러공급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9년에는 한국경제의 회복세 진입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상승 등에 따라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활기를 띠어 자본유입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수지도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가치 향방이 중요하다. 1999년중에 미국경제의 둔화조짐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 이 경우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미일간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달러화 약세-엔화강세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년에 출범한 유로화체제의 영향으로 국제투자자금들의 달러화자산 이탈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이러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원화 가치는 작년보다 더 절상될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금년말에 1,150원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으로는 1,170원 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의 대응 방향

이러한 경기동향속에서 정유업계가 대응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환율변동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외환 및 자본자유화 확대속에서 금년에는 원화환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변동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유업계의 경우 원화가 절상되면 원자재 수입부담이 감소하여 득이 되겠지만, 원화가 절하되면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업계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헷지(hedge) 기법이나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 등 금융기법을 적극 채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증자나 공개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부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대항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여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나중에 경기가 악화되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시장경쟁 원리가 우세하게 작용하여 능력없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기회복으로 인하여體質強化 노력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작년 원유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이제 세계 메이저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업계는 외국회사들과 제휴관계를 맺거나 고객만족 경영을 철저히 하여 시장을 상실당하지 않는 전략수립이 중요하다. ☺